인쇄가 최고야 !

인류 문명생활에 기여한 3대 발명품을 꼽으라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인쇄술, 나침반, 화약이 그동안 국제적으로 묵시적 공인(?)을 받아왔다.

Y2K에 미국에서 발행되는 라이프 잡지가 지난 1천년간 인류문명을 꽃피게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금속활자인쇄술을 선정, 발표하여 다시한번 인쇄문화의 시대적 자리매김을 확인한 바 있다.

독일 함부르크 헬무트 슈미트대학 교수이며 '국제기술사위원회' 사무총장인 한스 요하임 브라운씨가 얼마전 「세계를 바꾼 가장 위대한 101가지 발명품」이라는 저서를 발간했다. 한스교수는 문자, 종이도 포함된 101가지 발명품중에서 인쇄술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꼽았다.

또한 바퀴를 과학기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으로 선정했으며 컴퓨터를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으로 꼽았다.

물론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작용했고 한스교수가 중국의 기원전 목판인쇄술과 점토활자까지는 인식하고 있는 듯하나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금속활자 발명국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듯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를 꼽았는데 인쇄를 가장 중요한 발명품 반열에 올려놓은 식견은 인정할만 하다.

> 어려운 때일수록
> 어떤 계기가
> 마련되어야 한다.
> 특히 인화단결을
> 간격좁은
> 대인관계에만 의존할
> 것이 아니라 밑바탕에
> '직지' 를 깔고
> 선조들의
> 영예를 되살린다는
> 자세로 힘을 모아야만
> 할 때이다.

우리는 1377년에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발간하는 등 금속활자 발명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부끄러운 지적이지만 아직까지 적지않은 국민들이 직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대한인쇄문화협회 등 인쇄단체, 세계직지문화협회, 청주시 및 민간단체에서 국내외적으로 우리의 자랑거리인 직지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범국가적인 지원과 활동이 아쉽다. 답답한 지적이지만 사실 인쇄업계는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어떤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인화단결을 간격좁은 대인관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밑바탕에 '직지' 를 깔고 선조들의 영예를 되살린다는 자세로 힘을 모아야만 할 때이다.

인쇄업계 밖에서 인쇄업계를 향해 "직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자랑하라"는 충고(?)를 더 이상 듣지 않게끔 대국민, 대국제홍보와 함께 인쇄인들이 머리를 높이들고 통합이라는 큰 틀을 향해 매진하여야겠다.

오세익 · 편집주간